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424.10원에 마감
------	------------------------------

6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424.50(15:30 기준) 대비 1.50원 하락한 1,423.0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국내 증시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수출기업의 대규모 네고 물량이 발생한 데 영향받으며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424.1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5.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96.21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23.00	1429.50	1414.50	1424.10	1418.80
	엔화	901.15	905.35	896.21	896.21	-
	유로화	1642.54	1649.55	1634.45	1638.78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2	-2.52	-6.81	-14.5
	결제환율(수입)	-0.27	-1.37	-4.61	-10.7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 불확실성 재부상에...1,4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23.80, 15:30 기준) 대비 0.75원 하락한 1,422.50원에서 최종고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불확실성 해소 낙관론 후퇴에 강달러 압력 받으며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이란의 미국, 이스라엘 등 적대국 소속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 검토 소식에 양국의 외교적 해법 모색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급부상하며,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확인될 경우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와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상승하며 강달러 재료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금일 환율은 개장 후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금일 야간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심은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중인 AD R 및 네고 물량 역시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16.75 ~ 1430.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892.7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75원 ↓
	■ 美 다우지수 : 53885.1, -464.02p(-0.8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04.6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3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